

“정성 담은 남도의 맛 ‘남도장터’에 오면 다 있다”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나주시 ‘남도장터 우수상품 품평회’ 개최 화순 건강나물 등 37개 업체 참여...대형유통사와 안정적 판로 기회도

“남도장터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제 남도장터와 함께 해 남 농산품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3대째 담양에서 김복녀약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밀, 우리조청으로 정성껏 만든 상품이 남도장터를 통해 더 팔려나가길 기대합니다.”

“지금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나이 든 소상공인들의 복잡한 서류 절차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광 법성포에서 만든 고추장 굴비를 누구나 쉽고 편하게 드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에서 10년 전 귀농해 곡성 육과에서 참송이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남도장터에서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기쁩니다.”

“화산에서 시래기, 고사리, 토란대, 우거지, 취나물 등 다양한 나물들을 바로 드실 수 있게 가공해 판매합니다. 남도장터에서 건강에 좋은 남도나물을 쉽게 맛보세요.”

“완도 전복을 드시기 좋게 손질해 깨끗하게 포장해 판매합니다. 누구나 드셔보시면 만족합니다. 남도장터에서 만나보세요.”

해남 고구마·감자·절임배추 등을 유통하는 농업회사법인 늘해랑을 창업해 2023년 매출 270억 원을 넘어선 박준환(37) 대표, 담양에서 외화머

나-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약과를 만들어 그 맛을 세계에 전하고 싶은 고수경(62) 대표, 영광 법성포에서 굴비와 고추장 굴비를 보다 쉽게 맛볼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고 있는 이기주(69) 대표, 그 외에도 정성일(54) 곡성 육과농원 대표, 김정아(40) 화순 자미담 대리, 나송주(27) 완도 해미원 대리 등 남도의 맛을 곳곳이 지키며 식품으로 전 세계에 남도를 알리고 있는 37개 지역 업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남도장터가 지난 2022년 말 법인으로 출범한 뒤 최초로 18일 오전 나주에서 입점 업체 우수상품의 대형유통사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4 남도장터 우수상품 품평회’를 개최했다.

참가업체들은 22개 대형유통사 36명의 상품기획 매니저(MD)에게 자신의 상품의 특징과 장점, 경쟁력 등을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갈수록 지역 인구가 감소하면서 현장 판매로 수익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남도장터를 통해 대형유통사와 안정적 판로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품평회 개최식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신의준·이재태 전남도의원,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유관기관·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남도장터의 법인화,



2024 남도장터 우수상품 품평회가 18일 오전 나주 센텀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김경호 남도장터 대표를 비롯한 내빈과 전남도내 사·군 및 유관기관, 참가업체 대표 등이 남도장터의 더 나은 판로확대를 기대하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내실화 등에 전력을 다해온 김 지사는 축사에서 “남도장터 입점업체의 힘찬 도전과 개척의 여정에 전남도가 늘 함께하면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남도장터 발전 유공 감사패 수여, 전남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롯데아울렛 남약점·주식회사 그립컴퍼니) 및 전문인력 양성 MOU(목포대 산학협력단), 남도장터 발전·협력 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펼쳐졌다.

남도장터는 이날 품평회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

정될 경우 신규 유통 채널 입점 및 기획전 참여, 온라인 홈쇼핑 및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호 대표이사는 “이번 품평회는 우리 고장을 지키며 지역 농수축산물로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 기업인들을 위한 것”이라며 “남도장터는 우리 고장의 상품을 보다 쉽게 국내·해외 소비자 만나볼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도장터는 입점 업체 2000개, 회원 83만명,

연매출 600억원 규모의 전국 지자체 대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이다. 지난 2022년 말 전남도출연기관으로 법인화돼 공공형 유통플랫폼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며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품평회에 참여한 업체들은 남도장터에 매출이 낮은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마케팅 지원, 영세기업들의 상품 고도화 및 해외 진출 보조, 인기 상품 제조 기업의 기술 전수 등 다양한 바람도 전했다. /윤형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기록적 폭우...전남, 지하차도 의무 진입차단시설 단 1곳 설치

의무화에도 전국 설치율 40%...광주 1곳 남아 올해 마무리 예정 민주당 양부남 의원, “국민 생명과 직결...참사 예방 전력 다해야”

‘오송 참사’가 발생한 이후 기록적인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광주지역 8곳 중 7곳은 설치 완료됐지만, 전남 지역은 10곳 중 단 1곳만이 설치를 마무리했다. 전국적으로도 지하차도 10곳 가운데 6곳은 여전히 관련 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지하차도 402곳(국도교 통부 소관 지하차도 제외) 가운데 실제로 시설이 구축된 곳은 164곳(40.5%)으로 집계됐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후 행정부는 전국 지하차도 995곳 가운데 402곳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15cm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광주는 의무화 대상 8곳 중 현재 7곳은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마쳤고, 남은 1곳도 연내 공사를 마무

리할 계획이다. 신용(북구 동림동)·월출(북구 용전동)·선운(광산구 운수동)·수완(광산구 수완동)·신덕(광산구 소촌동)·함양(가정·남구 함양동)·죽림(북구 동림동)에는 설치 완료했고, 서창(서구 마북동)은 현재 설치 중이다.

반면 전남은 전체 의무화 대상 10곳 중 1곳에만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됐고, 올해 내에 7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여수 석장지하차도에는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됐고, 올해 설치 예정인 지하차도는 여수 상암·호명·반월 지하차도, 순천 용림·조곡 지하차도, 광양 서천도철, 장성 장성역 지하차도이다. 순천 장천·풍덕 지하차도는 올해 이후에 설치 예정이다.

지난해 오송 참사가 발생한 충북은 설치 의무화

대상 25곳 가운데 22곳(88.0%)에 진입차단시설을 구축해 가장 높은 설치율을 기록했다.

서울은 59곳 가운데 35곳(59.3%)을, 경남은 33곳 가운데 19곳(57.6%)을 구축했다. 반면에 경기도는 112곳 가운데 23곳을 설치해 20.5%에 그쳤다. 세종은 16곳 중 3곳을, 대구의 경우 설치 의무 대상은 21곳이었지만 단 한 군데도 설치하지 않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33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고, 연내에 99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2025년 이후에는 지자체 예산 실정에 따라 남은 139곳에 대한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부남 의원은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이번 주부터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참사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SINCE 1952

효성첨단소재, 광주지역 창업기업 협업 지원

광주시, 올해 대기업 13곳 이상과 개방형 혁신 전략 추진

HYOSUNG ADVANCED MATERIALS

광주시는 18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효성첨단소재 등 대기업과 지역 창업기업들이 참여한 개방형 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 창업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해 중장기 협업 모델 개발과 후속 투자 등을 지원하는 행사이며, 효성첨단소재와 지역 기업 8개사가 동참했다.

광주시는 지역 창업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대기업과 지역 창업기업의 ‘개방형 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을 짜고 있다. 이 행사는 지역 창업기업과 대기업의 만남 기회를 제공해 중장기 협업 모델 개발과 후속 투자 등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효성첨단소재는 수요 기술을 공개하고, 개방형 혁신전략 프로그램과 협업사례를 소개했다. 효성 탄소섬유를 적용한 소재·부품·장비 전략사업 분야로, 이번 개방형 혁신전략 행사에 참가한 지역 창업기업은 호그린에어, 에스티에이지, 썬지락, 세르보테크, 씨엔에스컴퍼

니, 크리에이티브아트, 현승테크, 드론펄라 등 8 곳이다.

이들 기업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웨어러블, 항공우주 등 분야에 응용 가능한 기술을 발표했다.

효성첨단소재는 효성그룹 주력 계열사로, 첨단소재 관련 글로벌 기업으로 꼽힌다.

이날 ‘개방형 혁신전략’ 행사는 기존의 형식적인 방식을 탈피해 실질 협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대기업과 창업기업의 1대 1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협업의 기회를 극대화했다.

광주시는 올해 조광페인트, IBK창공에 이어 삼성전자, 호반그룹, HD현대상호, 메가존클라우드 등 대기업 13곳 이상이 ‘개방형 혁신전략’에 대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역 기업들과 공동 협업모델 등 혁신 창업과 기술사업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오는 11월 28-29일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을 앞두고 매일 사전 교류행사도 진행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지역 창업기업들이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